

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

주간 ESG 뉴스 2026.09.11~2026.09.18

구분	시장 동향
Energy	● 노르웨이, 태양광 설비 1GW 돌파...신규 설치는 둔화 (2026.09.16, pv magazine) 노르웨이의 누적 태양광 설비용량이 9월 중순 Elhub 집계 기준 1,003MW로 처음 1GW를 돌파. 다만 신규 설치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어 대규모 발전사업과 계통 여건 개선이 추가 성장의 과제
	● 독일·UAE, 재생에너지·가스 협력 확대 (2026.09.14, ESG News) 독일과 아랍에미리트는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여러 협약을 체결하며 에너지 협력을 강화. 또한 이번 협력은 €3B 이상의 잠재적 투자를 포함하는 건
Government	● 미 환경청,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폐지 확정 (2026.09.15, ESG Today) 미 환경청은 화석연료 발전소의 배출기준과 탄소포집·저장 설비 의무를 대부분 폐지. 발전소의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철회도 제안. 향후 규제 부활이 어려워지는 조치로 업계 비용 부담은 줄지만, 환경단체가 소송을 예고한 상황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 확대안 채택 (2026.09.15, ESG Today) 유럽 의회는 수입품 탄소비용 부과 대상을 철강·알루미늄 등 기초소재에서 태양광 패널·히트펌프 등 450여 개 가공제품으로 넓히고 우회수출 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안을 464 대 50으로 채택
Corporations	● FDX, 지속가능항공유(SAF) 2,000만 갤런 이상 확보 (2026.09.16, ESG Today) FedEx는 '27년까지 미국 5개 공항에서 사용할 SAF를 2,000만 갤런 이상 확보해 '25년(약 500만 갤런) 대비 크게 확대. 공항별 혼합비율은 30~50%로 예상되며, '30년 대체연료 30% 목표와 연계되어 SAF 수요 기반 확대 신호로 해석
	● XOM, 텍사스 CCS 프로젝트 승인...13년간 CO₂ 최대 5,300만 톤 저장 (2026.09.16, Bloomberg) ExxonMobil은 텍사스 규제당국으로부터 13년간 최대 5,300만 톤의 CO₂를 지하 저장할 수 있는 Rose CCS 프로젝트 허가를 획득. 해당 프로젝트는 걸프만 연안 산업시설에서 포집한 탄소를 영구 저장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
Funds	● 미국 주(州) 연기금, SEC 주주제안 규정 변화에 스튜어드십 약화 우려 (2026.09.15, Responsible Investor) 미국 플로리다·위스콘신·코네티컷 주 연기금들은 SEC가 주주제안 관련 연방 규정을 폐지하고 감독 역할을 축소할 경우 주주제안 절차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 전반의 스튜어드십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 플로리다 SBA는 규제 변화가 대형 연기금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며 '27년부터 일부 지배구조 주주제안의 대표 제출자 역할을 검토
	● 호주 Aware Super·HESTA, 초기 단계 풍력·배터리 프로젝트 투자 (2026.09.15, Investment Magazine) 호주 연기금 Aware Super와 HESTA는 Itera Renewables를 통해 퀸즈랜드 최대 600MW 풍력·배터리 프로젝트와 빅토리아주 배터리 프로젝트에 신규 투자하며 에너지전환 자산 노출을 확대. HESTA는 2030년까지 포트폴리오의 10%를 기후솔루션에 배분할 계획이며, Aware Super도 분산형 에너지와 배터리 인프라 투자를 확대
	● 캐나다 CPP·Brookfield, \$50B 규모 캐나다 인프라 펀드 조성 (2026.09.15, Net Zero Investor) 캐나다 연기금 CPP와 Brookfield는 \$50B 규모의 캐나다 인프라 펀드를 발표. 향후 5년간 최대 절반 집행 계획. 지분 기준 C\$5B 이상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집중해 '30년까지 \$1T 투자를 유치하려는 Carney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 다만 투자 목록에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인프라가 함께 포함돼 있어, 향후 자금 배분이 연기금의 기후 전략 측면에서 주목

자료: 언론보도, LS 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투자전략팀).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